

2017년 5월 17일, 안덕면 서광서리 서광서리경로당, 김승연 조사.  
강추월(여, 1928년생, 안덕면 서광서리)

- 줄거리: 어느 마을에 이서방과 김서방이 살았다. 이서방은 처와 아기를 낳고 살고, 김서방은 홀아비였다. 이서방과 김서방이 겨울에 노루사냥을 갔는데 김서방이 노루를 막아주는 척하면서 이서방을 죽이고 돌아왔다. 이서방이 사냥하다 죽어버렸다고 하고는 이서방 처와 같이 살면서 아기까지 여럿을 낳았다. 몇 년후 김서방은 처에게 이서방을 죽였다는 사실을 말했다. 처는 그런 놈 죽이길 잘했다며 어디에 묻었냐고 물어보았다. 처는 그곳에서 이서방 뼈를 찾아 치마에 싸고 관가로 가서 김서방을 처 별 해달라고 하였다.

**[조사자]** 거난, 할머니안티 들은 말은?

**[제보자]** 할머니한티 들은 말은, 저 '열 아기 나도 훈 브람 엇다.' 훈 말이 뭇 말이냐?

뚝집이 김서방 앞집이 이서방이 살았는데, 김서방이 홀아방이라. 홀아방이고 앞집인 애기덜토 낳고 사는데 겨울에

“노리 사농 가자.”

하나네 앞이 산 눈이 엄청 묻었는디

“너랑 저쪽으로 강 막으라 날랑 이쪽으로 강 막으키여”

헤 뒀에, 그 앞집이 놈을 죽여분 거라. 그 홀에비가 그 각시 얻영 살젠, 죽여 버리니까 들어오질 아년단 말이여 각신 암만 기다려도. 게난 뒷집이 사름 들으난 우리집 사름 어덜 갓넨 하나,

“하 널랑 저 목으로 강 막으라 난 이목으로 강 막으키여 헛는디, 도저히 오질 아년다.”

하니까 하도 춤 이상스럽다 뭇 이 둘 살아봐도 안 오고 저 날 살아봐도 안 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헤네 춤 일 수눌언 하단 보난 결국은 좋안 산 거라. 살안 이젠 애기도 뭇 개난 거라. 게나네 애기 낳고 하나네 이제 똥이엔 진정으로 굴아도 어떻 아널 테주 헤네,

“나 옛날 너네 서방 죽여불었다.”

하나네

“아이고 그 놈 잘 죽여볼앗수다. 거 어디 죽입데가? 나 강 그 놈 빼라도 닥닥  
못앙 데껴볼쿠다.”

헉나에 이젠 줄줄줄 강 그리치나네. 확확 치메통에 그 뺨 연주완 법에 놀려든  
거라.

“이런 씨덜은 그차야 헉주 나두지 았읍네다.”

지가 아길 나도

“이 씨들랑 다 그차줍서.”

경 헤네 법에 강 이혼헉나네 ‘열 애기 나도 혼 브람 엇다.’ 혼 게 그 말이엔  
힙디다.

애기가 그 사름 몸에 하영 나도 이것덜이랑 이런 나쁜 놈들이랑 손 그차 달라.  
게 사름 까치가 엇지. 아명 이녁 새끼도 기영 나뉘 뵈자 그런 종내기덜은 필요가  
없다는 거라.

- 핵심어 : 흠애비, 김서방, 이서방, 노루사냥, 아기